



"임무영 담임목사의 고요한 아침편지"



"길드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주제로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중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쯤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성경내용 중에 단골손님격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팔복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러한 패턴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요. 팔복의 진미는 이러한 패턴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유는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해 지라는 요구일까요? 온유해지라는 요구일까요? 사실 팔복의 의미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패턴이 팔복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복, 위로를 받은 복등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는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내 안에 있기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우리에게 마치 찬송가 가사 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길들여 지다'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마부에 의해서 철저히 길들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그것에 길들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에, 어떤 사람은 여행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길들여 집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반석을 쳐 물을 내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염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많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을 살아왔기에 가능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루가 아니라도 단 몇시간 만이라도 약속의 땅을 밟아봐야겠습니다"라고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며 설레이십니까? 사람은 길들여지는 존재라면 잘 길들여져야 합니다. 제대로 길들여져서 나를 길들인 그 분을 위해 야생마처럼 쓰임 받아야 합니다. 부부사이가 좋은 가정의 특징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길들여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길들여지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구요. 아니 이미 온유한 자가 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길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www.chicagobridgechurch.org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Ahyuwani Akanet
(Teacher: Mike Brick)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어디서: 시카고 브릿지 교회 본당
*연재: 10/31(월) 5PM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출전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담임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 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1부)Ahyuwani전도사
(2부)윤혜복 집사

헌금찬양.....다같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 433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4)>

느헤미야 3장 1-32절
(Nehemiah 3:1-32)

설교.....임무영 목사

“함께 걷는 이 길”

(Let's walk together to be oneness)

설교후 찬양.....다같이

“축복의 사람”

*축 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본 당
주일예배 2부	12:00 pm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영 아 부	12:00 pm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 등 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함께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 10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브릿지 교회 요람, 10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안내팀 및 위경미)
-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매달 3, 4주일)
-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이용: www.chicagobridgechurch.org
- 브릿지 교회 인스타그램(Instagram) 오픈: ID (chicagobridgechurch)
-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토요새벽예배(베드로전서 강해 10): 10/22(토) 6am, 현장및 Zoom
- 1부예배: 10:30am / 소예배실

4. Coffee Break 요나서 소그룹 모임 (4주차)

- 일시: 10/16(주일) 2pm
- 주일반 모임장소: 남성반(소예배실), 여성반(Room 10AB-한마음)

5. Coffee Break 산상수훈 소그룹 모임 (3주차)

- 기간: 10/19(수), 7:30pm (zoom)

6. Noah's Ark

- 일시: 10/31(월) 5pm
- 장소: 교회본당 및 Fellowship Hall / 내용: 예배, 맛있는 저녁 및 즐거운 게임
- 주관: 차세대팀 (문의: 황은수)

7. 2022년도 성탄절 칸타타 연습

- 일시: 10/16(주일), 친교 후
- 장소 / 대상: 본당 / 찬양을 좋아하는 브릿지 가족 누구나 (문의: 이신숙)

8. "You & I and We" 추수감사절 Christ Lutheran Church와 연합예배를 위한 미팅

- 일시: 10/16(주일), 친교시
- 대상: 운영위원 및 CLC Representatives

9. 예배 및 봉사위원

- 친교: 윤성분(윤흥규) / 다음주: 김지영(손유기), 노혜정(이사무엘)
- 다음 주 기도: 김지영 (1부), 김성광(2부)
- 10월 안내및 헌금위원: 배정은, 이신숙(헌금) / 안희자, 표춘자(안내)

10. 기도제목

-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사명을 잊지 않도록
-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11. 지난 주 출석: 어른(89), 다음세대(28) / 총 117명